

소유의 의미유형: 한·영 소유구문의 의미차이

윤재학*†

경희대학교

Jae-Hak Yoon. 2009. Types of Possessive Meanings: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Possessives. *Language and Information* 13.1, 93–125. We examine attributiv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in examples like *wuli manwula* ‘my wife’ and *wuli nala* ‘my country’, where an apparently plural pronoun *wuli* ‘our’ is used to convey the singular meaning of ‘my.’ An example like *wuli manwula* has been a frequent topic of joke, because it clearly contains the literal sense of ‘shared wife.’ This type of use and the frequent use of *wuli* in an exclusive *my* context led many to claim that these are products of Korean culture which emphasizes groups and group solidarity over individuality, the example *wuli manwula* being the extreme case. Drawing on the work of Taylor (1989; 1996), Croft (2001; 2003), Haspelmath (1997; 2003), and 윤재학 (2003), we compare the meanings of Korean and English possessive constructions and seek a more linguistically based account for the data.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i) *wuli* in question is not really the plural form of *nay* ‘my’, (ii) the possessive constructions in Korean are more conservative and limited in possible relations than the English counterparts are, and that (iii) these two facts interact to produce the afore-mentioned uses. (Kyung Hee University)

Key words: conceptual space, possessive construction, possessive meaning, semantic map, *wuli*, 개념공간, 소유구문, 소유의미, 우리, 의미지도

1. 머리말

Heine (1997, 2)는 저서 *Possession*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소유구문의 범언어적 공통성을 강조하였다:

“I am not aware of any language that would not dispose of some explicit means for expressing, for example, ‘This is my wife’”

*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번지 경희대학교 영미어학부. Email: jyoon@khu.ac.kr

† 논문의 주요 내용이 2008년 5월 한국어언어정보학회와 2008년 10월 오레건대학 언어학과 집담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논평을 제공한 학자분들과 자세한 지적을 통해 논문의 완성에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표현한다. 본 연구는 2006년도 경희대학교 연구지원에 의한 결과(KHU-20060520)입니다.

Heine가 한국어 소유구문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다른 예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주장은 한국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변화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내 마누라’ 보다는 ‘우리 마누라’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증가된 외국어 접근성으로 인하여 ‘우리 마누라’가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거나 지적을 받은 다수의 화자들이 ‘내 마누라’ 방식의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나 외동딸이 부친을 지칭할 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내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재학, 2003). 물론 위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마누라’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오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소유구문에서 ‘내’에 비해 ‘우리’라는 표현을 더욱 빈번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언어학 논문을 통한 설명은 찾기 어렵고, 비언어학자들이 한국문화의 속성과 관련지어 나름대로 설명을 추구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아래에 소개한 글들은, ‘우리’를 자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부정적 정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등장하는 개념이 동일하게 연대가치, 공동체 의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양운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도시속에서의 ‘나’와 ‘우리’”

(출처: http://archilaw.org/aboard/alec.bbs/content_board)

“한국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꽤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우리집, 우리학교, 우리동네, 우리나라. 심지어는 마누라까지도 우리마누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것이 비록 ‘우리’라는 복수소유격의 의미보다는 다분이 단수적인 ‘나’의 의미가 더 강하거나 아니면 ‘나’라고 해야할 경우에라도 ‘우리’라는 복수격을 붙임으로써 동류의식과 연대가치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재정학 교수 장석정은 저서 『미국 문화지도』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사용을 영어와 비교하여 비판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들도 많은 경우 my 라는 소유대명사로 지칭한다. 자기가 다니는 학교도 my school, 다니는 회사도 my company, 집이나 마을이나 나라도 my house, my town, my country,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my God 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나라가 되고,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마저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여 세상에 유례없는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언어에 배인 극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문화 칼럼니스트 이규태는 저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우리’의 빈번한 사용을 아래와 같이 음식문화, 단독 소유개념의 부재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구미 사람들이 자기 부모나 형제 집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학교 동네 회사 단체 민족 국가 인류를 말할 때 우리라는 복수표시를 한다는 법은 없다. 곧 나의 어머니, 나의 집, 나의 학교, 나의 나라로 표현을 하는데 반해, 유독 한국인은 우리 엄마,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로 표현한다. “...” 먹는 습속에서도 ‘나’는 ‘우리’ 속에 매몰되는 테두리에서 예외가 아니다. 서양 사람들은 큰 그릇에 있는 우리 음식을 내 접시에 옮겨 놓고 내 것으로 만든 다음 내 것을 먹는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우리 음식을 한 상에 차려 놓고 우리 모두가 우리 것을 직접 들어다 먹는다. 그러기에 음식상에 오른 음식은 찌개에서부터 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것이다.” [84-86]

“형제로 보이는 어린이가 연 하나를 날리며 놀고 있었다. 작은 놈더러 저 연 네것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흔든다. 큰 놈더러 그럼 네 연이구나 하고 묻자 역시 고개를 흔든다. 그럼 뉘 연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연’이라는 것이었다. 그 우리 속에는 형제뿐 아니라 아버지도 가끔 날리기에 아버지까지 포함된 전체의 우리인 것이다.

연의 소유를 두고 내가 우리 속에 매몰되어 있음을 본다. 비단 일개 노리개인 연뿐만 아니라 모든 세간이나 가치를 둔 내 것이라는 단독 소유의 개념이 한국인에는 지극히 박약했으며 이 집체에의 개체 매몰은 한국인에게 특출한 의식 가운데 하나랄 것이다.” [84]

동일한 대화맥락에서 영어 문화권의 *my*와 *our*의 사용과 비교할 때, 영어권에 비해 한국어에서 ‘내’보다 ‘우리’를 현저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체와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사회학적 설명보다는 한국어와 영어의 소유구문의 의미차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내집단 개념을 ‘우리’에 도입한 윤재학(200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형어 ‘우리’와 ‘내’의 의미가 영어의 *our*와 *my*와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설명이 문화적, 화용적 설명보다 더 타당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본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소유구문이 영어 해당 구문에 비해서 소유관계로 허용되는 정도에 제한성이 더 많다는 사실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제안한다.

2. ‘우리’의 사용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사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유형은 예문 (1)과 같은 단수적 ‘우리’로서 형태적으로는 ‘우리’

를 사용하나, 의도하는 의미는 항상 단수적인 것으로서 ‘우리 남편’, ‘우리 형’, ‘우리 어머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 흔히 비논리적, 모순적 표현으로서 지적되는 대표적인 예다. 형제가 총 2명인 가정에서 동생이 형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우리 형’과, 유일한 자식이 모친을 지칭하는 ‘우리 어머니’도 단수적 ‘우리’라는 점에서 (1)과 동일한 유형에 속한다. 영어 표현과 비교할 때 축자적 번역은 (1a)에 가까우나, 실제 의미는 (1b)이다.

- (1)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 a. #Our wife is the best.
- b. My wife is the best.

둘째 유형으로는 (2)에 나타난 예문과 같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복수적 해석이 가능하나 다른 언어의 환경에서는 단수적 의미가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빈번히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문 (2)는 청자가 모두 외국인인 상황에서도 사용된다. 따라서 포괄적 대화(inclusive conversation) 상황에 나타나는 ‘우리’가 아니다. 이 문장은 또한 주어로서 단수인 ‘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수의 화자를 대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위 (1)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2b)에 나타난 바와 같이 ‘my’로 가장 적절히 번역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의 ‘우리 마누라’가 ‘our wife’의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문이 단수적 ‘우리’라는 의미의 문제라고 한다면, (2)의 ‘우리나라’는 해석상으로 ‘my country’와 ‘our country’ 둘 다 가능하기는 하지만,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에 비해 단수적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용하는 사용환경과 빈도의 문제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 (2)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 a. #I love our country.
- b. I love my country.

구체적으로 (1)에 나타난 ‘우리’는 의미론의 영역이나, (2)의 ‘우리’는 화용론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2)와 같은 유형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면 아래 (3)과 같이 대조를 이루게 된다. 학술발표에서 특정학교 출신으로 유일하게 참가하는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동일 상황에서 영어에서는 *my*를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 (3) a. #내 학교/우리 학교에서는 학술대회 참가 경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 My school/#Our school didn't pay for the travel expenses in time.

본 절의 2.1-2.2에서는 단수적 용법의 ‘우리’의 의미에 관한 윤재학 (2003)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3절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일반적인 소유의미의 유형에 관한 대조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2.1 단수적 ‘우리’

한국어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1, 2인칭 대명사를 구어적 (informal)/ 무표적 (unmarked) 표현과 문어적 (formal)/ 유표적 (marked) 표현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현 양식	단수	복수
1인칭	구어적/무표적	내	우리
	문어적/유표적	나의	우리의
2인칭	구어적/무표적	네/니	너희/니네
	문어적/유표적	너의	너희의

[표 1] 한국어 소유격 형태

위의 분류를 ‘개략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서두에서 소개한 단수적 ‘우리’에서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고 추가로 아래에서 밝히듯이 ‘우리’는 ‘내’에 대한 엄격한 의미의 복수형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의 기능과 단수의 기능이 혼재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소위 구어적 표현의 ‘복수’는 1인칭 ‘우리’는 물론 2인칭 ‘너희/니네’에서도 단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발견된다. 아래 (4)와 같은 문장이 청자가 단수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4) 너희/니네 엄마 어디 가셨니?

또한 아래 (5), (6), (7)의 예문을 고찰할 때 ‘우리’는 ‘내’의 복수형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1)의 ‘우리 마누라’는 복수의 화자와 공동의 배우자 관계는 아닌 것은 자명하다. 또한 격조사 ‘의’를 부가한 문어적 표현 ‘우리의’는 (5b), (6b)와 같이 사용될 수 없고, 의미적으로도 복수의 관계가 요구되는 일반적 소유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소유격 형태가 단형과 장형 간의 경쟁관계에서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형이 선호되기 때문에 장형의 (5b), (6b)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예문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수 형태 ‘제/저의’는 두 가지 형태가 모두 허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5) a. 저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b. #저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 (6) a. 저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b. #저 사람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 (7) a. 저 학생은 제 동생입니다.
 b. 저 학생은 저의 동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복수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에 문어표현인 ‘우리의’는 영어에서 보이는 복수형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즉, (5b), (6b)에 나타나는 구문은 항상 복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적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2 내집단 표시

소유구문의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내’의 복수형이 아니라는 가설을 제안하였으므로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서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적절히 답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이 구문에서 복수적 의미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¹ 윤재학 (2003)은 ‘우리’ 사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내집단’(內集團, in-group)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대표적 의미로서 ‘우리 X’가 표시하는 것은 X에 의해 지칭되는 개체가 화자와 동일한 내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복수의 개념은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복수의 개념과 상충되지 않으면 외연적으로 ‘내’의 복수적 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내’의 복수의 개념으로 흔히 이해되는 것은 ‘우리’가 ‘내’의 복수의 개념과 호환적인 상황이 비교적 대다수인 결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세 가지의 논거가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2.2.1 ‘우리’ + 고유명사.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우, ‘우리’ 구문은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개인이 화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화자가 속하는 단체가 점유하는 지역, 또는 그 단체 자체라는 것을 표시한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서는 아래 (8)을 들 수 있다.

- (8) a. 우리 네로를 잘 부탁해.
 b. 우리 종필이를 잘 부탁해.
 c. 우리 노사모는 ...
 d. 우리 대한민국

¹ ‘엄밀한 의미’라는 수식어로 부정어의 범위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소유구문의 ‘우리’가 명백히 복수형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아닌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관계인 ‘내 가방’, ‘우리 가방’의 경우 단수와 복수의 규칙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e. 우리 연변에서는 ...
- f. 우리 카사블랑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8a,b)의 경우에는 ‘네로’ 및 ‘종필이’가 지칭하는 개체가 화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이며, (8c)는 ‘노사모’는 화자가 속하는 단체 자체를 표시한다. (8e,f)의 경우에는 화자가 속하는 단체가 점유하는 지역을 표시하고, (8d)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단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예의 경우 (9)의 예문과 같이 ‘우리’ 대신 ‘내’를 쓰면 비문이 된다.

- (9) a. # 내 네로를 잘 부탁해.
- b. # 내 종필이를 잘 부탁해.
- c. # 내 노사모는 ...
- d. # 내 대한민국
- e. # 내 연변에서는 ...
- f. # 내 카사블랑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10)의 예문처럼 고유명사를 보통명사로 교체하는 경우, 적합성이 호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점적 관계의 경우인 (10a,b,f)에서는 이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 (10) a. 내 고양이를 잘 부탁해.
- b. ?내 아들을 잘 부탁해.
- c. ??내 팬클럽에서는 [회원으로서 소속된 경우]
- d. #내 나라
- e. ??내 지역에서는 ... [cf., 내 구역에서는 (신문, 우유배달 지역)]
- f. 내 술집을 잘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8)과 (10)을 비교할 때, ‘우리’의 사용은 같은 집단의 소속임을 표시하여 애정을 표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우리 연변에서는’, ‘우리 종필이’와 같은 구문은 고유명사의 어휘적 성격상 타 개체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제한적 수식어가 불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소유격 ‘우리’가 담당하는 기능은 2차 서술로서 화자와 중심어가 지칭하는 개체가 내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동일 내집단의 소속으로서 유대감, 친밀성 등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2차 서술을 통한 이러한 유대감과 친밀성을 나타내는 유사한 영어문장으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Quirk et al., 1985, 289).

- (11) a. **My** Chicago Bulls won the title. [‘my beloved Bulls’]
 b. Is **your** Jennifer still at school? [‘your daughter Jennifer’]
 c. Did you know that **your** Mrs White has been arrested for shoplifting?
 [‘the one you know’]

이 경우에 영어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친밀성과 유대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내집단의 개념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차이점은 영어의 경우 한국어와 달리 이러한 개념에 대한 언어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2.2 ‘우리’ + 단체. 아래의 예문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성에 차이가 난다. (12a), (13a)는 재단 이사장과 오너 사장의 입장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만 적절하지만, (12b), (13b)는 소유지분과 상관없이 재단 이사장, 교직원, 학생 등 해당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물론 내집단 구성원 간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청자가 외집단(外集團, out-group)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12) a. 여기는 내 학교야.
 b. 우리 학교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13) a. 내 회사를 왜 내 맘대로 경영 못하나요?
 b. 우리 회사는 노사의 인화단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다음의 문장에서도 나타난다. 직장 동료와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면서 말을 하는 경우, (14a)는 소유권에만 국한된 것이고, (14b)는 공동 소유권은 물론 이와 무관하게 화자의 주거장소에 관한 언급일 수 있다.

- (14) a. 저거 내 아파트야.
 b. 저거 우리 아파트야.

소유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권리이며, 주거는 공동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2.3 단체의 구성 요건. 다음 (15a)는 법률적 소유/점유관계가 아닌 경우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구문들이다. 반면에 (15b)는 허용된다.

- (15) a. #우리 술집/식당/가게 [고객으로서 자주 가는 장소일 경우]
 b. 우리 시장(market)/시청

시장과 가게의 차이는 무엇인가. 시장은 지역주민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장소)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집단 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반면, 술집이나 식당, 가게의 경우 단골이라 할지라도 그 곳의 단골 고객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문장 (16)에 나타나는 대조현상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 (16) a.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우리 전 남편을 만났다.
 b.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내 전 남편을 만났다.
 c.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우리 전 마누라를 만났다.
 d. 오늘 길거리에서 우연히 내 전 마누라를 만났다.

이 문장 중에서 (16a,c)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가설에 따르면 내집단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배우자 관계에 있다면 내집단 소속이 가능하지만, 이혼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내집단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우리’는 내집단 표시기능을 핵심의미로 포함하고 있고, 집단의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복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중복되는 결과가 빈번해서 복수 소유격으로 이해되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²

2.3 비소유 구문의 ‘우리’

학술논문 등에서 단수의 저자가 ‘우리’를 쓰는 경우는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단수적 ‘우리’와 구별된다. 먼저 이 경우에는 장르에 부합한 문체로서 텍스트 내의 구체적 상황의 차이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한국어에만 국한되는 사용이 아니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와 같은 문체가 존재한다. 둘째, 학술논문에 나타나는 ‘우리’는 주어로서도 사용되며 소유구문 형태로도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² 내집단의 개념을 활용하여 진리조건을 시도한다면 ‘우리 남편’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우리 남편 || :=> $\lambda Q \lambda x \lambda A [s \in A \ \& \ x \in A \ \& \ \text{husband-of}'(x, s) \ \& \ Q(x)]$

[1: 유일한 특정 개체에 대한 양화사, s: 화자, A: ‘우리’와 관련된 내집단을 나타내는 자유변수]

사용된다. 반면에 단수적 ‘우리’는 주어와 관형어 간의 사용 가능한 상황에 관한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래 (17), (18)과 같은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대조적인 환경에서 쓰인다. 이는 (19)와 같이 특수조사 ‘는’을 주격조사 ‘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 (17) 우리는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18) 우리는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19) a. #우리가 설탕 없이는 커피 못 마시겠더라.
 b. #우리가 그런 때는 말로 안 해.

또한 다음 (20)과 같은 문장에서도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1) 예문과 대조를 이룬다.

- (20) #우리는 지난 번 마누라 생일에 장미를 선물했어요.
 [저는 어제 아내 생일에 향수를 선물했어요.]에 대한 응답으로
 (21) 우리는 장미를 선물해요.
 [저는 아내 생일에 향수를 선물합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위 문장 (20)과 (21)의 차이는 다름 아닌 총칭성 (genericity)이며, 이에 따라 총칭문 (generic sentence)에만 단수적 ‘우리’가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기호, 성향, 의견 등 매우 개인적 관점을 표출하는데 ‘나’ 대신 ‘우리’를 사용하여, 이러한 성향을 가진 집단의 존재를 전제하고 자신이 그 집단에 속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자신의 성향을 정당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취향을 유력한 대안으로서 강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퍼스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는 내용이나, 직관적인 체감빈도는 타 언어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언어상황에 따라 위의 경우처럼 영어에서 *we*가 쓰이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쓰이기도 하고, 영어에서 *we*가 쓰일 수 있는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우리’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22)는 영화 *Cinderella Man*에서 주인공 역을 하는 Russell Crowe가 권투시합에서 이기고 집에 들어서면서 자랑스럽게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문장은 한국어 화자에게는 예상되지 않는 *we*의 매우 특이한 사용의 예로 여겨진다.

- (22) We won!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에서는 축자적 번역 (23a)는 부적절하며, 가장 적합한 한국어 문장은 (23b)나 (23c)가 될 것이다.

- (23) a. #우리가 이겼어!
 b. 아빠가 이겼어!
 c. 내가 이겼어!

Quirk et al. (1985, 350-351) 이 소개하는 *we* 의 단수적 사용의 특별한 용법은 위에서 언급한 논문체의 양식 이외에 다음 두 가지 포함하고 있는데, (24) 는 의사가 단수의 2인칭인 환자에게, (25) 는 비서들끼리 단수 3인칭 직장상사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법이다.

- (24) How are we feeling today?
 (25) We're in a bad mood today.

이런 사례를 미루어 볼 때 한국어에서 ‘우리’를 상대적으로 빈번히 사용한다는 직관은 소유 구문에 국한시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4 단수적 ‘우리’에 대한 기존 연구

단수적 ‘우리’ 사용에 관한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본격적 연구는 비교적 최근 윤재학 (2003) 에서 시작되었다. 윤재학 (2003) 은 단수적 ‘우리’가 사용되는 환경을 종합하고, 내집단 개념을 활용하여 단수적 ‘우리’의 핵심적 진리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26)-(27) 과 같은 예에서 나타나는 대조현상을 통해 서열관계가 ‘우리’와 ‘내’ 사용의 중요한 요소라는 신기현 (2000) 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대조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³

- (26) a. 우리 아버지/어머니/형
 b. #내 아버지/어머니/형
 (27) a. 우리 아들/딸/동생
 b. 내 아들/딸/동생

교육학 분야의 논문에서 정경옥 (2005) 은 단수적 ‘우리’를 소개하고 나타나는 일부 환경을 소개하고 집단강조의 문화적 속성에 기인한 사용으로 간주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이한규 (2007) 는 윤재학 (2003) 에서 관찰된 관계와 사용에 추가적인 다양한 맥락과 사용을 소개하면서 내집단 개념을 통한 화용적 설명을 시도하여 전반적인 단수적 ‘우리’ 사용에 관한 이해를 확대시킨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한규 (2007) 는

³ 예문 (26), (27) 은 화자의 상위 서열자인 아버지/어머니/형에게는 ‘우리’만을 사용해야하나 하위 서열자인 아들/딸/동생에게는 ‘우리’와 ‘내’가 다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점과 함께 몇 가지 한계도 드러내고 있는데, 우선 단수의 화자가 단독적으로 내집단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남편’과 같은 구문의 경우 내집단 개념의 활용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기술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 X’의 구문에서 단수의 화자 단독으로 내집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X 자리에 주어진 맥락에서 거의 모든 명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화용적 설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나타난 ‘우리 형’과 ‘내 동생’의 대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화용적 설명은 근본적으로는 비전문가들의 상식적 선언과 마찬가지로 유대감, 공동체 의식에서 높은 사용빈도로 이르는 논리의 비약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사용환경과 높은 빈도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단수적 ‘우리’의 사용은 단순한 화용적 접근으로는 근본적 설명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서양사회에도 다양한 조직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한국사회 못지않게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하부 조직이 있을 수 있다. 화용적 접근에 따르면 이 조직의 대화에서는 영어의 경우에도 한국어에서처럼 *our wife, our country* 라는 표현을 빈번히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야만 되는 것이나, 이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정이라고 판단된다.

3. 소유 구문의 의미 비교

본 절에서는 영어 구문에 나타나는 소유의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고, 영어 소유구문 한국어 소유구문의 자체 및 상호비교를 통해 의미 차이를 포착하고자 한다.

3.1 영어의 소유격 관계

영어의 굴절형태 소유구문 A's B의 기본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 (28)과 같이 매우 다양한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된다 (Poutsma, 1914, 41).

- (28) a. possession: my brother's books, the earth's crust
 b. origin: the pheasant's nest, nature's work
 c. subjective: Elizabeth's reign, the horse's breathing
 d. objective: Gordon's murder, their kingdom's loss
 e. measure: an hour's interval, a shilling's worth
 f. apposition: Tweed's fair river, treason's charge

물론 이러한 분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소유의 의미가 바탕이며, 위와 같이 다양하게 확장되어 사용되는 것은 일종의 은유현상으로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Nikiforidou (1991)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은유 연결망에 의해서 전체와 부분(*my*

hand), 가족 관계 (*John's wife*), 경험자-경험체 관계 (*the woman's anger*), 목적격 소유 (*the President's murder*) 등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Taylor (1996, 5-6)의 경우에도 소유격 구문 *John's car*에서 John과 해당 차량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상술하고 있다: 기본적 법적 소유의 관계; 사용 및 점유의 관계 (돈을 내고 빌린 렌트차량); John이 디자인한 차량; 자동차 경주에서 John이 응원하는 차량 등 화용적 상황에 따라 거의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Huddleston and Pullum (2002, 473-475)에서도 소유구문이 아래와 같은 다양한 관계를 나열하고 있다. 이 또한 대화맥락의 풍부함의 정도에 따라 가능한 관계는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9) Mary's green eyes	[d has body part h]
Mary's younger sister	[d has kin relation h]
Mary's husband	[d has married relation h]
Mary's boss	[d has superior h]
Mary's secretary	[d has subordinate h]
Mary's friend	[d has equal h]
Mary's team	[d is member of h]
Mary's debut	[d is performer of h]
Mary's book	[d is creator of h]
Mary's new house	[d is owner of h]
Mary's honor	[d has human property h]
Mary's anger	[d has feeling h]
Mary's letter	[d is recipient of h]
Mary's obituary	[d is human topic of h]
Mary's surgery	[d is undergoer of h]
the room's Persian carpet	[d is location of h]
this year's new fashions	[d is time of h]
the sun's rays	[d is natural source of h]
the cathedral's spire	[d has inherent part h]
the war's ancient origins	[d has cause h]
the flood's consequences	[d has result h]
the lock's key	[d has associated part h]
the summer's heat	[d has non-human property h]

참고: d: dependent, h: head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구문이 모든 관계를 다 허용하지는 않으며, 소유구문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관계에 제한성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예를 들어 다음 (30)-(31)에서 (a)의 관계는 허용되지만 (b)의 관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30) a. Liz's car
 b. #the car's Liz
- (31) a. the cat's tail
 b. #the tail's cat

다음은 구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아래 예문 (32)는 굴절형태 소유구문 A's B 유형과 전치사 소유구문 B of A가 소유의미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을 보여 준다 (Quirk et al., 1985, 321).

- (32) a. What is *the ship's* name?
 b. What is the name *of the ship*?

그러나 아래 (33)-(34)는 둘 중에서 한 가지 형태만 사용되는 경우에 속한다.

- (33) a. John's school
 b. ?the school of John
- (34) a. the front of the house
 b. *the house's front

이 둘 사이의 적절한 선택과 관련하여 주된 요인으로 Quirk et al. (1985, 1277-1282)은 A구의 유정물 여부와 같은 어휘적 요소, A와 B의 명사적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주격은 두 구문에서 다 자유로우나 목적격은 *of*에 국한되는 경향과 통사적으로 복잡한 구에서는 전치사 구문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소통적 요인으로 정보의 초점이 뒤쪽인 영어의 경향에 따라 중요한 정보의 위치여부에 의해 구문이 선택되기도 한다.

또한 아래 (3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문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굴절형태 소유구문은 주격의 의미해석을 선호하고, 전치사 소유구문의 경우 목적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Quirk et al., 1985, 322). 이는 사실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어휘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동작주로 나타나는 유정물 주어의 경우 주로 굴절형태 구문, 반대의 경우 전치사 구문을 이루기 때문이다.

- (35) a. the family's support

b. the examination of the fire department

또한 역사적 변화를 겪는 경우도 있어 아래 (36)-(37)과 같이 동격의 의미는 현대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of 구문에 국한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36) a. The joy of his return

b. *his return's joy

(37) a. an angel of a girl

b. *the girl's angel

마지막으로 굴절형태의 소유구문에는 불가능한 관계로서 전치사 소유구문에만 나타나는 관계로 아래 (38)-(39)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38) a. a man of great faith

b. *great faith's man

(39) a. a man of character

b. *character's man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전치사 소유구문이 굴절형태 소유구문에 비해서 허용하는 관계가 보다 더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Quirk et al., 1985; Taylor, 1996).

3.2 한국어 격조사 ‘의’

본 소절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영어의 소유구문을 한국어 격조사 ‘의’가 나타나는 구문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소유구문은 영어에 비하여 관계의 제한성이 높음을 보인다. 한자어와 일본어의 영향으로 소유관계에 다양성이 증가된 면이 있으나 구문의 규칙성을 보이기보다는 어휘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 합성명사적 단계로 나타난다.

한국어 소유격 관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격조사 ‘의’다. 격조사 ‘의’는 영어에서 관찰된 (28)의 여러 가능한 의미 중에서 일반적으로 목적격과 동격의 의미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8d, f)를 번역하면 아래 (40)과 같이 주격의 의미로 해석되어 원하는 원문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목적격 의미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문절의 형태로, 동격의 의미를 위해서는 ‘-라는’이라는 전혀 다른 구문을 활용하게 된다.

(40) d. # 철수의 살인 [cf. 철수를 살인한 것/사실]

f. # 트위드의 아름다운 강 [cf. 트위드라는 아름다운 강]

물론 영어의 경우에도 주격 해석이 선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의 제한된 문맥에서 목적격과 동격이 허용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차이점은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허용 정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어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 예문에서 *her voters*에 대한 적절한 번역으로는 ‘그녀의 투표자’는 부자연스럽다.

(41) CNN “Larry King Live” (2008년 6월 6일)

Hillary has hurt Obama’s voters. And he also has hurt her voters.

(42) a. # 그녀의 투표자

b. 그녀에게 투표한 유권자

이에 따라 원문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절 형식으로 풀어서 ‘그녀에게 투표한 유권자’ 식으로 번역하게 된다. 소유구문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용어인 ‘그녀의 지지자들’로 옮길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영어표현은 *her supporters*가 있고, 의미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⁴ 이와 같이 영어의 소유표현을 한국어의 소유표현으로 옮길 수 없는 경우가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경우에 비해 많다면 이는 한국어 소유구문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어 소유구문에서 전반적으로 목적격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의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예로서 (43) 유형의 구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경동사 구문을 형성하는 한자어에 기반한 ‘상실’, ‘착취’, ‘인멸’ 등 동사성 명사가 중점어로 기능하고 있다.

(43) a. 왕국의 상실, 노동의 착취, 증거의 인멸

b. 노조의 탄압, 범인의 석방, 케네디의 암살

(43a)의 경우 격조사구가 모두 무생물로서 동작주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점이 목적격 해석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격조사구의 의미적 정보가 의미역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로 Trueswell, Tanenhaus, and Garnsey (1994)이 파악한 현상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반면 (43b)의 경우는 ‘노조’, ‘범인’, ‘케네디’

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지 고찰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그녀의 지지자’는 사실은 목적격 해석이 아니라 주격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그녀의 지지자’는 ‘그녀가 소유한 지지자’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는 반면, ‘그녀의 투표자’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⁵ Trueswell, Tanenhaus, and Garnsey (1994)은 단어 빈도수와 통사적, 화용적 맥락이 단어재인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예를 들어 아래 (i)에 있는 문법적 하자가 없는 두 문장 중에서 (a)는 오인현상(garden-path phenomenon)이 발생하는 반면 (b)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장처리가 된다는 실험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가 모두 유정물이기 때문에 동작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43a)와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격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호되는 해석이기도 하다. 이는 함께 나타나는 단어빈도와 합성어적 속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캐네디’와 ‘암살’은 거의 연어로서 나타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나머지 경우에도 ‘노조탄압’, ‘범인석방’ 등이 합성어로서 작용하는데 이에 격조사 ‘의’가 부가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자어에 기반한 경동사 구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연어성이나 합성성이 존재하지 않는 구문의 경우에는 아래 (44)와 같이 주격해석이 일반적이다.

(44) 가족의 지원, 적군의 공격

예외적으로 동격 해석을 받는 경우로서 아래 (45)를 살펴 볼 수 있다. 매우 희귀한 경우로서 등장하는 예이기는 하나, 통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대역죄’라는 합성어의 존재가 동격 해석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45) 대역의 죄

이와 같은 동격 해석과 목적격 해석이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문원전의 之를 ‘의’로 번역하고, 일본어 조사 노(の)를 ‘의’로 번역한 관행의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46) <소학언해>

맹자 가라사대... 부모의 공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 한 불효요

여기에서 ‘부모의 공양’은 일반적으로 주격 해석인 한국어 틀에서 벗어나 ‘부모를 공양’이라는 목적격으로 학습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고향의 봄을 시작하는 가사 (47)에서는 일본어에서 주격조사 대신에 한국어 ‘의’에 가까운 노(の)를 사용하는 통사적 특성을 한국어에 그대로 옮긴 것이라 볼 수 있다.

(47)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는 ‘내가 살던 고향이’ 적합하다. 일본에서 교육 받은 작가 이인직은 신소설의 효시 ‘혈(血)의 누(淚)’(1906년)를 발표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일본어식으로 노(の)의 번역투인 ‘의’를 첨가함으로써 부자연스러운 한국어

- (i) a. The defendant examined by the lawyer turned out to be unreliable.
- b. The evidence examined by the lawyer turned out to be unreliable.

이는 (a) 문장에서 명사구 *the defendant*가 동작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어휘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b) 문장에서 나타나는 *the evidence*는 무생물로서 동작주로 기능하기 보다는 동작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ib)에서는 수동구문을 예측하여 *examined*가 과거분사로 우선적으로 분석이 되지만, 동작주 기능을 우선하는 (ia)에서는 *examined*가 최초에는 단순과거 형태로 처리되어 오인현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표현을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된다. ‘혈의 누’의 의미는 ‘피눈물’로서 ‘피의 눈물’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며, 한자어 표현으로도 ‘혈루’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결국 번역체에서 시작된 ‘의’가 현재 공시적 관점에서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아래 (48)과 같은 표현은 의미적으로 소유의 한계를 다소 벗어난 경우로서 중점어의 속성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48) a. 역전의 명수, 위기의 주부, 자유의 투사

b. 고독의 가을, 야망의 계절, 불의의 일격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자주 통용되어 확립된 표현만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래 (49)에서 (a)와 같은 표현에 비해 (b)와 같은 표현은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익숙한 표현만이 허용된다는 것은 이 구문의 허용여부는 합성어 구성요건과 같은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49) a. 해변의 여인, 산장의 여인

b. ??강변의 여인, ??바다의 여인

이에 따라 아래 (50)과 같이 유사한 영어표현에 대한 적절한 번역으로서 ‘의’ 구문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견된다.

(50) a. a woman of courage: # 용기의 여인

b. the love of power: # 권력의 사랑

c. men of science # 과학의 인간

동일선상에서 아래 (51)과 같은 표현은 플라톤과 베이컨의 철학에 조예가 있는 소수에게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대중들은 이런 표현의 문법성에 의문을 표시한다면, 이 표현 자체가 학습의 결과로 받아들인 합성어로 파악해야 한다.

(51) a. 동굴의 이상

b. 시장의 이상

영어에서 앞에 나타나는 명사구를 뒤의 명사구가 후행 수식하는 A preposition B 구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관행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before*, *after*, *outside*, *by/beside*, *behind*, *above* 같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전치사의 경우 한국어 ‘전/앞’, ‘후’, ‘밖’, ‘옆’, ‘뒤’, ‘위’ 등 불완전 명사를 사용하여 번역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시공관계가 아닐 경우 일부가 ‘B의 A’의 구문으로 번역된다.

나머지 경우에는 관계절의 형태로 풀어서 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Quirk et al. (1985, 1274-75)에 나열된 다양한 전치사구 후행수식의 경우, 위에서 분류한 세 가지 경우의 한국어 번역을 기준으로 나열하여, 시공관련 불완전명사 번역 (52), 'B의 A' 번역 (53), 단순 명사구가 불가능하여 관계절 형식을 사용하여야 하는 번역 (54)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52)

passengers <u>on board</u> the ship	선상(의) 승객들
action <u>in case</u> of fire	화재시(의) 행동
the house beyond the church	교회너머(의) 집
two years before the war	전쟁(의) 2년 전, 전쟁 전(의) 2년
a tree by a stream	시내 옆(의) 나무

(53)

a man from the electric company	전기회사의 사람
the meaning of this sentence	문장의 의미
the man with a red beard	빨간 턱수염의 남자
the girl with a funny hat	이상한 모자의 소녀

(54)

the road to Lincoln	# 링컨의 길, 링컨에 이르는 길
this book on grammar	# 문법의 책/서적, 문법서적, 문법에 관한 서적
a delay pending further inquiry	# 추가조사의 지연
the present for John,	# 존의 선물, 존을 위한 선물
the man for the job	# 작업의 사람, 작업을 위한 사람
the woman with the child	# 아이의 여인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완전명사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격조사 '의'가 수의적으로 불완전명사에 추가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명사구의 연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또한 시공관계의 전치사는 규칙적으로 (52)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반하여 (53), (54) 두 가지 유형은 통상적인 소유관계의 *of*를 제외하면 우연적인 속성이 강하다. 예를 들어 (54a) *the road to Lincoln*은 '링컨의 길'이 불가능한 반면, *the road to success*는 '성공의 길'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같은 표현이 '성공의 도로'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위에서 예측한 '의' 구문의 합성어적 속성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영어의 경우 *of*가 다른 전치사에 비해 의미정보가 가장 적으며 문법적 속성이 기능의 대부분이라는 점은 두 가지 사실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첫째, 예문 (55)와 같이 명사화 구문에서 동사가 동사성을 상실하면서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요구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전치사가 바로 *of*이다.

- (55) a. They polished the furniture: their polishing of the furniture.
 b. Smith writes novels: the writing of novels (by Smith).
 c. The enemy destroyed the city: the enemy's destruction of the city.

둘째, 아래 예문 (56)에서와 같이 전치사 *of*는 다른 전치사가 나타나는 환경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의미 변화없이 생략될 수 있다.

- (56) John went out (of) the door.
 Mary got off (of) the grass.
 Merchandise is flying off (of) the shelves

한국어 '의'가 위 (52)에서 보여준 수의성은 영어의 *of*와 마찬가지로 의미적 속성이 매우 약한 격조사임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of* 구문과 '의' 격조사 구문이 영어와 한국어에서 각각 소유구문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⁶

영어의 A's B, B of A 구문은 전형적 소유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A의 유정물 여부에 따라 구문의 선호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는, 굴절형태로서 문법화가 더 진행된 결과로 A's B 구문이 B of A 구문보다 소유관계에 더 가까운 속성의 의미로 제한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of* 구문은 이 보다 더 다양한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어 '의' 구문은 문어적 표현에서 소유에 관한 독점적 구문이기 때문에 유정물 여부에 상관없이 영어의 A's B 구문, B of A 구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능한 관계는 영어에서 유정물 여부에 따른 두 구문 간의 일종의 상보적 관계를 제외하면 한국어 소유구문에 나타나는 의미의 제한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A의 B'는 항상 A's B 혹은 B of A로 번역이 가능하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소유구문에 관한 구체적인 상대 어휘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구어적인 속성을 지닌 굴절형 1, 2인칭 소유격 대명사 *my*와 '내', *your*와

⁶ Kempson (1977)의 접근방식처럼 일반적인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영어의 경우 특정하지 않으면 *have*와 *be*를 통해 연결되는 관계이며, 한국어에도 '가지다', '이다/있다' 등 유사하게 기본 서술관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흔히 소유구문으로 분류되는 A's B, B of A 나 'B의 A' 구문에도 이와 같은 기본 서술관계가 이전되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위에서 관찰된 일치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매우 의미있는 논의이지만 본 논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후속연구로 미루고 위에서 고찰된 경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니’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나의’와 ‘내’를 비교하면 ‘우리의’와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 (57a)에서 ‘나의 석방’은 목적격 관계가 가능하지만 (57b)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57) a. 그들은 나의 석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b. 그들은 내 석방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문체적 일치성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번역투에서 시작한 문어체에서는 본래부터 생소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유형의 문어표현과 구어표현의 차이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에서도 아래와 같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58) a. 저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b. #저 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59) a. 저 사람이 우리 남편입니다.

b. #저 사람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3.3 one's vs. one's own

영어에서 단순 소유격 *one's*와 강조적 지정사(emphatic determinative) *one's own*의 의미차이는 *one's own*의 경우 전체적으로 독점적 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Quirk et al., 1985, 362-263). 다수의 대화맥락에서 둘 다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점유관계가 아닌 독점적 소유관계를 구분할 때는 *one's own*만 적절하게 받아 들여진다. 예를 들어 새 차를 몰고 나온 친구 B에게, A가 아래 예문처럼 단순 소유격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답으로 (58B)가 발화되는 것이다.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미 목격한 상태에서 B의 점유성에 대해 재차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대화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60) A: Is this your car?

B: Yes, what do you mean? [부자연스런 질문에 대한 응답]

이런 경우에는 (59)와 같이 *one's own* 형태의 사용으로 원하는 대화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61) A: Is this your own car?

B: I wish. No, it's my dad's.

아래 예문 (60)의 두 문장은 상이한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자가 소극적인 성격 등의 이유로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와 의견은 자주 발표하지만 자신의 창의적인 의견은 없고 항상 남의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60a)는 의견 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전자의 경우에 의견 개진을 호소하는 발언으로 적절한 반면, (60b)는 창의성을 촉구하는 후자의 경우에 적절한 문장이다.

(62) a.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pinion for a change?

b. Would you please give me your own opinion for a change?

마찬가지로 아래 예문 (61)에서도 (a) 예문은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b) 예문은 셔츠를 입긴 했으나 본인 소유의 셔츠가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함축한다.

(63) a. He didn't wear his shirt.

b. He didn't wear his own shirt. (Instead he wore mine.)

이상을 종합하여 *one's*와 *one's own*의 의미를 비교하면, *one's*의 경우 위에서 Poutsma (1914), Huddleston and Pullum (2002) 등에 나열된 넓은 의미의 소유관계가 가능한 반면 *one's own*의 경우 좁은 의미의 소유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⁷

3.4 *one's/one's own* vs. '내/니'

영어 *one's*, *one's own*과 비교할 때 한국어 소유격 대명사 '내/니'는 의미의 범위가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my/your*와 상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내/니'이지만 위의 (58), (59)의 맥락에서 사용된 (58')는 이러한 대조가 나타나지 않고 점유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 소유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된다.

(58') 이거 니 차니?

또한 (60)의 환경에서도 (60')과 같은 문장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your*보다는 *your own*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⁷ 넓은 의미의 소유와 법적인 소유 등 좁은 의미의 소유라는 경계의 구분이 분명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다림질 작업을 하는 세탁소 직원 간의 대화라면 아래와 같은 *one's own*의 사용은 법적인 소유보다는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량을 의미할 수 있다.

(i) John, please finish ironing your own clothes before helping others.

(60') 한 번쯤은 니/네 의견을 얘기해 봐라, 응.

또한 아래 (62)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의 경우 *one's*와 *one's own*의 불일치가 부정어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반면에 (63a)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한국어 '니'에서는 소유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일단 소유격을 사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대신에 (63b)처럼 관계절 형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64) His hat is not his own.

(65) a. #니 모자 니 꺼니?

b. 니가 쓰고 있는 모자 니 꺼니?

다시 말하면 (63a)에서 영어의 경우와 달리 '니 모자'는 '니가 쓰고 있는 모자'라는 점유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3.3-3.4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어의 경우 '내/니'가 영어의 *my/your*와 *my/your own*의 대조가 가지는 두 의미 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의미를 공유한다는 직관을 반영하는 사실로 파악할 수 있다.⁸

3.5 한영 의미 비교표

아래에서 실제 상황에서 한영 소유구문의 의미 비교를 통해 구체적 차이점을 포착하도록 하겠다. 논의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황은 항상 화자의 독점적 소유, 점유 등의 상황으로 제한하도록 한다.⁹ 아래에서 신문사와 야구팀은 단체라는 점에서 '우리'의 사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독점적인 법적 소유관계에 있는 사주와 구단주의 경우에도 '내'와 함께 '우리'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사물인 서적과 자동차의 경우 '우리'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친구에게서 차를 잠시 빌린 경우에 영어에서 *my*가 사용될 수 있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내'와 '우리'가 모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66) 신문사

	my newspaper	우리 신문사	내 신문사
소유관계 (사주)	√	√	√
소속 기자	√	√	
소송 변호인	√	√	
구독자	√	√	

⁸ 참고로 배타적 소유를 위한 의미로는 '나만의/너만의/자신만의'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one's own*의 의미를 일부 공유하면서도 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배타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나만의 차'는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공유가 허락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⁹ 즉, 같은 관계에 속하는 개인이 대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대화맥락의 풍부함 여부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이 영어, 한국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따라서 같은 정도의 대화맥락을 감안하여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67) 서적

	my book	우리 책	내 책
법적 소유	√		√
저자	√		√
법적 점유(대여)	√	√	?
사적 점유	√		
버려진 책을 깔고 앉아있는 상태	√/?		

(68) 야구팀

	my team	우리 팀	내 팀
소유관계(구단주)	√	√	√
선수	√	√	
담당취재기자	√	√	
치어리더	√	√	
야구팬	√	√	

(69) 자동차

	my car	my own car	우리 차	내 차
법적 소유자	√	√		√
법적 점유(리스)	√	?		√
법적 점유(렌트)	√			?
친구에게 빌린 차	√			
단독 개발자	√		?	?
자동차경주 팬	√		√	

이상의 비교표 (64)-(67)에서도 위 3.2-3.3에서 관찰한 한영소유구문의 보수성의 차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대 어휘비교에서는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 소유 의미가 보수적이며, 특히 '내'의 경우 영어의 my 보다 독점적 소유관계에 국한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맺는말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4.1에서 Croft (2001; 2003), Haspelmath (1997; 2003) 방식의 개념공간과 의미지도를 소유의미에 도입하여 한국어와 영어 소유구문의 언어적

차이를 개념공간을 통하여 비교하여 나타낸다. 4.2에서는 위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대조현상이 4.1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4.3에서는 단수적 ‘우리’와 유사한 일본어의 소유구문 *uchi-no* 를 소개하여 4.1에서 제안한 내용이 일본어에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4.4에서는 보통명사의 복수와 1인칭 대명사의 복수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내’와 ‘우리’의 비대칭성에 대한 소고로 마무리한다.

4.1 소유의 개념 공간

앞의 논의에서 우리는 ‘소유구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소유의 개념이 이미 정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영어의 *one’s, one’s own, B of A* 구문과 의미적으로 이에 상대되는 ‘A의 B’ 구문을 중심으로 의미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유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만족한 것이었는데, 소유의 정의를 법적 소유에서 어디까지 확장하여야 하는지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Taylor (1989)가 제안한 경험적 게스탈트(gestalt)로서 소유의 개념을 채택하여 소유라는 것은 전형성(prototype)에 기반한 관계로 인식하고자 한다. Taylor (1996, 340)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요소의 집합을 소유의 전형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요소가 많고 정도가 전형에 가까울수록 전형적 소유의 의미이고 요소가 적고 관계가 전형에서 멀어질수록 비전형적 소유 개념으로 위계화할 수 있다.

- (70) a. The possessor is a specific human being.
- b. The possessed is an inanimate entity, usually a concrete physical object.
- c. The relation is exclusive, in the sense that for any possessed entity, there is usually only one possessor. On the other hand, for any possessor, there is typically a large number of entities which may count as his possessions.
- d. The possessor has exclusive rights of access to the possessed. Other persons may have access to the possessed only with the permission of the possessor.
- e. The possessed is typically an object of value, whether commercial or sentimental.
- f. The possessor’s rights of access to the possessed are invested in him through a special transaction, such as purchase, inheritance, or gift, and remain with him until the possessor effects their transfer to another person by means of a further transaction, such as sale or donation.

- g. Typically, the possession relation is long-term, measured in months and years, not in minutes or seconds.
- h. In order that the possessor can have easy access to the possessed, the possessed is typically located in the proximity of the possessor. In some cases, the possessed may be a permanent, or at least regular accompaniment of the possessor.

Croft (2001; 2003) 와 Haspelmath (1997; 2003) 가 제안한 개념공간 (conceptual space) 과 의미지도 (semantic map) 는 언어의 유형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개념공간은 범언어적 인지적 개념으로서 정도차이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공간을 말한다. 반면 의미지도는 특정 언어의 어휘나 구문이 관련 개념공간에 투사되어 배치된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동일한 개념공간에 언어별로 다른 의미지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위의 전형성을 바탕으로 하여 소유의미 관계를 개념공간을 설정한다면 아래 (69) 와 같이 우측으로 갈수록 위에 제시한 원형적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는 관계이고, 좌측으로 갈수록 반대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71) <소유관계의 개념공간>



3절에서 고찰한 한영소유구문의 차이를 바탕으로 소유관계 허용 위계를 살펴보면 아래 (70)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우선, 영어에서 *my* 보다 *my own* 이 보다 더 전형적인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영 구문 비교를 통하여 ‘내’가 *my* 와 *my own* 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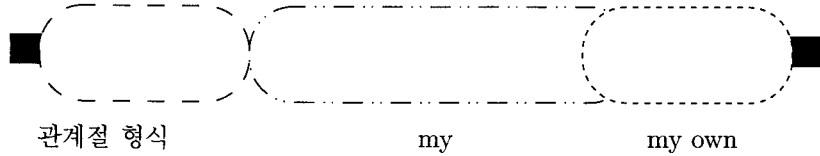
(72) 소유관계 허용 스케일

$my \preceq my\ own$
 $my \preceq \text{내} \preceq my\ 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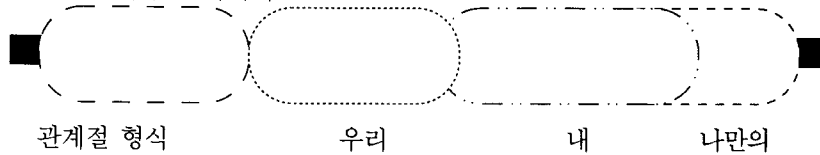
한영 소유구문의 관계를 개념공간에 일인칭 단수형에 국한하여 나타내면 각각 아래 (71) 과같이 표시할 수 있다.

(73) 한영 소유관계 의미지도

a. 영어 소유구문 의미지도



b. 한국어 소유구문 의미지도



위의 의미지도를 살펴보면 영어의 경우 *my own* 이 가장 전형적인 소유관계 부분을 담당하고, 어느 정도 *my*의 영역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는 맥락에 따라서 둘 다 허용되는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영어 *my*의 관계가 다양하지만 철저하게 비전형적인 소유관계까지는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는 관계절이 담당한다. 한국어의 경우는 ‘나만의’가 영어의 *my own* 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적 사용의 의미 등 소유관계의 강한 전형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내’의 경우에는 *my own* 과 *my*의 중간적 개념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개념공간에서 ‘내’가 담당하지 못하는 좌측 부분인 반면 영어에서 *my*가 위치하는 공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의 의미제약으로 인한 표현성에 대한 진공상태를 ‘우리’가 해소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내’는 영어의 *my*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독점적 소유와 법적인 소유 및 점유 등 사용이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비전형적인 소유관계의 개념공간을 담당하지 못하여 상당한 어휘적 공백을 노출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 반면에 ‘우리’는 내집단 표시의 의미를 포함하는 등, 소유자가 비독점적 관계이며 소유대상이 일반적으로 사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일 경우에 사용된다. 즉 비전형적 관계의 대표적 소유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비전형적 소유관계를 ‘우리’가 맡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Croft (2001; 2003)의 의미지도 연속성 가설(Semantic Map Connectivity Hypothesis)에 따르면 개념공간의 공백을 남기지 않는 것이 언어의 속성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내’가 남긴 개념공간의 어휘공백을 ‘우리’가 해소하는 것이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어휘공백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어 사용자가 언어표현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용의 대안으로는 해당 구문을 관계절의 형식으로 풀어 쓰는 것이다. 그러나 명사구 앞에 위치한 소유구문의 주된 기능은 한정기술(definite description)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서술대상을 지칭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관계절에 비해 단형인 소유구문이 선호된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이는 소유구문이 소유자와 피소유자 관계에서 일정수준의 현저성을 제공할 경우에 한하며, 해당 언어가 허용하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전형적 소유관계는 관계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3인칭의 예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영어표현 *her voters*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그녀의 투표자들’이 불가능하고, 또한 ‘우리’가 적용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관계절 표현으로 ‘그녀에게 투표한 유권자들’로 표현하였다. 위 (69)에 나타난 개념공간에서 가장 좌측에 위치하는 극단적인 비전형적 소유관계는 기술적으로는 소유관계라 할 수 있지만, 자연언어에서 어휘적으로 소유구문이 이러한 관계를 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2 서열관계 대조

위에서 제안한 소유관계 개념공간을 활용하면 신기현 (2000)이 고찰한 서열관계에 따른 아래 (26)-(27)과 같은 대조현상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위에서 관찰한 대로 영어의 *my*에 비해 한국어 ‘내’는 상대적으로 전형적 소유의미에 가까운 개념공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점적 소유와 통제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Hegege, 1993). 피소유관계의 대상으로서 위계적으로 소유자의 상위에 있는 아버지/어머니/형은 아들/딸/동생보다 개념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비전형적인 좌측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아들/딸/동생은 ‘내’와 연결이 되어 화자의 통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나, 위계상 상위에 속하는 대상에게는 이러한 통제 밖이기 때문에 ‘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좌측 개념공간을 담당하는 ‘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⁰

(74) a. 우리 아버지/어머니/형

b. #내 아버지/어머니/형

(75) a. 우리 아들/딸/동생

b. 내 아들/딸/동생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72)와 같은 현실을 한국어에서는 소유구문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6) You may ‘own’ your younger brother, but not your seniors.

¹⁰ 서열관계에 기반한 유사한 대조현상이 중국어 일부 방언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인적 정보에 따르면 (Ying Chen) 중국어 *woman* ‘our’은 단수적 사용으로 남편에게만 쓰일 수 있고, 아내에게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대조를 보인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아내에 비해 상위 서열로 이해된다는 가정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i) a. woman laogong
our husband
‘my husband’

통제성의 요소가 공손표현과 관련하여 아래 (73)과 같이 나타나는 대조에 대한 설명도 제공할 수 있다. 공손표현 (73a)와 매우 도발적인 비공손표현 (73c)는 공손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지만 문장 자체로서는 완벽하다. 반면에 (73b)는 주어 ‘니/네 아버지’가 공손표현의 불일치로 문제가 발생한다.

- (77) a. 너희 아버님 어디 가셨니?
 b. #니/네 아버님 어디 가셨니?
 c. 니 애비 어디 갔니?

공손표현의 불일치 현상은 통제성의 요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너희’ 대신에 단수적 소유격 ‘니/네’를 사용하는 것은 청자가 청자의 상위위계에 있는 부친을 ‘소유/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 청자의 부친을 낮추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상대의 부친을 낮추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어서 (73c)처럼 낮은말 ‘애비’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73b)의 경우에 ‘니/네’로 낮추면서도 ‘아버님’이라고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¹¹

4.3 일본어 uchi

1절에서 소개한 양윤재의 칼럼, 장석정 (2008)과 이규태 (1983)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일본어 단어 *uchi*가 우리말의 ‘우리’와 매우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Connor (1987, 209)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Uchi means ‘insid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word in Japanese society is that it is used to demarcate what is ‘mine’ and ‘ours’ from what belongs to the ‘outside’. It is used in such ways as *uchi no kaisha* (our company), *uchi no hito* (my husband), *uchi no yatsu* (my wife) and *uchi no machi* (our town). ... “Unlike your boss, *uchi wa ...*” means ‘my boss’. “*Uchi no wa* just entered kindergarten” means ‘my child’.

Uchi very bluntly expresses the sense of identity. It refers to the place or group with which one has a sense of solidarity. The opposite is *soto* (outside) which at times is in an adversary relationship.

¹¹ 통제성의 개념이 소유관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한국어 구문과 일부 중국어의 서열관계에 따른 대조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Langacker (1995)가 제안한 아래의 세 가지 전형 (prototype)에 수정을 요구한다. 즉, 그가 제안한 대로 전형을 개념의 최소단위 (primitive)로 이해한다면 세 번째 전형인 가족관계 내에서 통제성에 따라 언어표현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78) a. ownership (my car)
 b. body-part or part-whole (my arm)
 c. kinship relations (my mother)

이에 따르면 *uchi*와 *soto*는 한국어의 ‘우리’와 ‘남’의 관계처럼 내집단과 외집단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 *uchi*는 아래 (74)와 같이 기본 의미로는 ‘inside’ 혹은 ‘home’을 뜻한다.

- (79) *Watashi-no uchi-wa nikai-date des.*
 my home-Top 2-story is
 ‘My home is a two-story house.’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단수적 ‘우리’의 많은 용례들이 일본어 *uchi*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사주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개념으로 (75a)와 같이 쓸 수 있지만, 직원의 입장에서는 (75b)와 같이 *uchi*를 사용한다.¹² 이는 한국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 출신이 화자 혼자인 상황에서도 사용된다.

- (80) a. *watashi-no kaisha*
 my company
 ‘the company that I own.’
 b. *uchi-no kaisha*
 ‘the company that I work for’

일본어 *uchi*가 ‘집’이나 ‘내부’를 뜻하는 말에서 기원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올 밑’, ‘올타리’, 동물의 ‘우리’에 나타나는 ‘올/우리’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유사성의 정도는 더욱 높아진다 (최준식, 1997).¹³

일본어 *uchi* 소유구문의 존재와 단수적 ‘우리’와의 유사성은 위에서 제안한 한국어와 영어의 개념공간의 차이점에 관한 결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본어 소유구문 ‘A의 B’의 구문은 한국어 ‘A의 B’ 구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지만 영어의 ‘s’와 *of* 구문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uchi*의 사용으로 어휘적 공백상태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¹² Kaori Idemaru와의 개인적 면담을 통해 확인함.

¹³ 물론 여러 면에서 차이점도 존재한다. 일부 지역에서 *uchi-no xx*의 생략된 의미로 *uchi*가 단독으로 주어로 사용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uchi-no kuni*는 사용되지 않고 대신 소유격 복수형인 *watashitachi-no kuni*가 사용된다.

¹⁴ Kikuchi and Sirai (2003)에서 A의 B 구문이 영어와 비교하여 매우 다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영어의 소유구문 A’s B, B of A에 국한하여 비교한 결과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이다. 위에서 한국어 ‘의’ 구문과 영어 B preposition A 구문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 대로 *of* 이외의 *in*, *on*, *with*, *by* 등과 같은 전치사 의미를 ‘의’나 *의*가 담당한 결과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나 한국어 소유구문에 해당하는 영어표현은 *of*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전치사 구문도 살펴봐야 한다. 반면에 영어의 소유구문 A’s B, B of A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 중에서 같은 맥락에서 직접 비교를 통하여 일본어 소유구문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본어 소유구문이 한국어와 유사하게 영어에 비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4 일인칭 대명사의 복수개념

소유구문에서 1, 2 인칭의 소유격 대명사에서 흔히 복수형으로 여겨지는 ‘우리’와 ‘너희/니’가 엄격한 의미에서 복수형이 아니라는 결과는 매우 놀라운 발견이나 주장이 될 수 있다. 진공상태 해소를 위해 가장 가까운 의미인 ‘우리’를 사용한 결과, 복수적 ‘우리’가 단수적 의미를 추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순서적인 것과 의미의 진화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는 최소한 단수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 시점에서 대명사의 복수는 보통명사의 복수와는 다른 의미적 속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아래 (76)과 같은 보통명사의 경우, 단수와 복수는 비교적 명확히 수의 차이로서 구분된다.

(81) a. (John has) one dog.

b. (John has) two dogs.

그러나 1, 2 인칭 대명사와 관련한 단수와 복수의 차이는 위와 같이 수적 차이로 간단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82) a. I (know John.)

b. We (know John.)

말하자면 (76a)와 (76b)는 복수성(plurality)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다. *one dog*은 개 한 마리의 경우이고, *two dogs*는 *one dog*의 경우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 인칭 대명사의 경우 단순한 복수성의 차이는 아니다. 쉽게 말해, *dog*이 여럿 있을 때 *dogs*라고 할 수 있으나, *I*가 여럿 있을 때 *we*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같은 문장을 낭독하는 (일종의 공동 선서) 의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대화상황에서는 화자는 항상 단수이며 *we*를 사용하더라도 이는 *I*가 여럿이라기 보다는 단수의 화자가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이를 집합의 크기(cardinality)를 사용하여 표시하자면 아래와 같이 구분 지을 수 있겠다.

(83) a. one dog: card(dog)=1; dogs: card(dog)≥2

b. I: card(I)=1; we: card(I)≥2

다시 말해, 보통명사의 단수, 복수의 차이는 (78a)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으나, 1 인칭 대명사의 복수는 (78b)와 같이 나타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보다는 1 인칭 대명사 복수에서는 화자가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화자를 포함한

집단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한국어에 나타나는 단수적 ‘우리’가 내집단 개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우연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 참고문헌 >

- Croft, W. 2001. *Radical construction grammar: syntactic theory in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roft, W. 2003.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aspelmath, M. 1997. *Indefinite pronoun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Haspelmath, M. 2003. The geometry of grammatical meaning: Semantic maps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 In M. Tomasello (ed.),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II. Erlbaum, Mahwah, NJ, pp. 211-242.
- Hegege, C. 1993. *The language builder: An essay on the human signature in linguistic morphogenesis* *Amsterdam Studies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Linguistic Science.*, 94. John Benjamins.
- Heine, B. 1997. *Poss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ddleston, R. and G. Pullum.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Kempson, R. 1977. *Semantic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Kikuchi, R. and H. Sirai, editors. 2003.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Japanese Postposition “no”*, Toulouse, France. In Workshop on the Linguistic Dimensions of Prepositions and their U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Formalisms and Applications, ACL-SIGSEM 251-262.
- Langacker, R. 1995. Possession and possessive constructions. In Taylor and MacLaury (eds.),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Mouton de Gruyter.
- Nikiforidou, K. 1991. The Meanings of the Genitive: a case study in semantic structure and semantic change. *Cognitive Linguistics* 2, 149-205.
- O'Connor, K. 1987. *Japanese business language: an essential dictionary*. Kegan Paul, London.
- Poutsma, H. 1914. *A Grammar of Late Modern English, for the use of Continental, especially Dutch, students. Part II: The Parts of Speech*. Noordhoff, Groningen.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Taylor, J.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Clarendon Press, Oxford.
- Taylor, J. 1996. *Possessives in English: An Exploration in Cognitive Grammar*. Clarendon Press, Oxford.
- Trueswell, J. C., M.K. Tanenhaus, and S.M. Garnsey. 1994. Semantic influences on parsing: use of thematic role information in syntactic disambigua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285-318.

- 신기현. 2000. Grammaticalisation of Social Relationship: Deference and Number in Korean. *현대문법학회. 2000년 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계명대학교.
- 윤재학. 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7.2, 1-30.
-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신원문화사.
- 이한규. 2007. 한국어 대명사 '우리'. *담화와 인지* 14.3, 155-2178.
- 장석정. 2008. *미국 문화지도*. 살림출판사.
- 정경옥. 2005. The Use of the First Person Plural Possessive Pronoun *Woorie* in Korean Language. *한국어 교육* 16.3, 405-422.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출판사, 서울.

접수 일자: 2009년 5월 14일

게재 결정: 2009년 5월 26일